

## GINA BEAVERS PASSIONARIES

January 16 - March 20, 2021

Various Small Fires is pleased to present *Passionaries*, American artist Gina Beavers' first solo exhibition in Asia and her first exhibition with VSF. In Seoul, the artist will present eight new paintings that look at contemporary Internet culture and social phenomena to consider themes that include consumerism, celebrity fandom, global media circulation, image consumption and manipulation, as well as the creation and distortion of the self.

Beavers' practice is rooted in the archiving of digital imagery with many hours spent scouring online resources such as Instagram, YouTube, Twitter, and Google. In recent years, Beavers has most commonly used makeup tutorial videos, snapshots of celebrities, and photos of so-called "#foodporn," a common Internet hashtag, as source material that is both internationally wide ranging yet culturally repetitious. *Passionaries* seeks to find and emphasize common ground between American and Korean audiences: her paintings *Gilgeori Toast* and *Korean Fried Chicken*, for example, all document Instagram photos of Korean-American street food that are extremely well-circulated beyond their geographic boundaries. To create her highly tactile, almost photo-realist works, Beavers applies layer after layer of acrylic paint, which she subsequently carves.

#foodporn images are styled to present food at its seductive, gluttonous best. These performative photos originated in Asia, and *Passionaries* returns this genre of photo-making to its source. Yet Beavers' sculptural paintings also undermine the flatness of the Instagrammed images her work otherwise carefully replicates, playing with questions of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on social media. A burger rendered carefully in acrylic by Beavers comes no closer to the original plated piece of food than a photo on Instagram. Here the artist engages with age-old questions related to the ability of an image, painted or otherwise, to serve as a "document" of a given object or scene — a question that only continues to play out on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more broadly in the present day.

The term "food porn" inherently gestures to the fusion of food and body, an idea literally embodied by works like *Liz Phair 'Parasite' Butt Cake*. Beavers' oeuvre often features paintings of the human figure, as portrayed in other works in *Passionaries* that include hands and lips based on stills from online makeup tutorials. These works all feature Beavers' painting of singer Liz Phair's own painted fan art (which Beavers discovered on the musician's Twitter feed) of a scene from the 2019 Korean movie *Parasite* — another potent pop cultural touchston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audiences, considering the film's breakthrough as the first non-English language film to win the Academy Award for Best Picture. In this context, Beavers' "fan art of Liz Phair's fan art," in the artist's words, becomes less a meditation on the particularities of *Parasite* itself and more about the globalized circulation, consumption, and distortion of media and celebrity fandom both on and offline.

In this particular scene from *Parasite*, the wealthy Yeon-Kyo takes a prospective tutor, Ki-Woo, on a tour of her enviable home, all the while projecting a meticulously-crafted veneer of contentment — the embodiment of "the good life," as we're led to believe. According to Beavers, this scene from *Parasite* becomes "almost a perfect real life metaphor for the experience of a Capitalist life lived online." As we scroll through our Instagram feeds, we're constantly fed carefully-curated images of what happiness should look like: the body we should have, the food we should eat, the lives we should desire. By way of images depicting carefully-manicured nails, temptingly-rendered burgers, and mesmerizing eye makeup, *Passionaries* puts these questions at center stage.

**Gina Beavers** (b. 1974 in Athens, Greec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received a BA in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a MFA in Painting and Drawing a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an MS in Education from Brooklyn College. Her work has been shown in solo exhibitions including MoMA PS1, New York; Marianne Boesky, New York; GNYP Gallery, Berlin; Michael Benevento, Los Angeles; Carl Kostyal, London; Clifton Benevento, New York; and Fourteen30 Contemporary, Portland. Recent group exhibitions include Schlossmuseum Linz, Linz; Frans Hals Museum, Haarlem; Gió Marconi, Milan; Foxy Productions, New York; CAPITAL, San Francisco; Loyal Gallery, Stockholm; Pratt Manhattan Gallery, New York; Nassau County Museum of Art, Long Island; Gavin Brown's Enterprise, New York; Cheim and Read, New York; and *Greater New York*, MoMA PS1, New York.

Contact [seoul@vsf.la](mailto:seoul@vsf.la) for general inquiries.



**Gina Beavers**  
*Seoul Bistro Fire Burger*,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40.6 x 40.6 x 10.2 cm (16 x 16 x 4 inches)  
 GB015



**Gina Beavers**  
*Korean Krispy Buttermilk Chicken Encased in Siracha Rice*  
*Krispy Coating with Red Jalapeno*,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40.6 x 40.6 x 10.2 cm (16 x 16 x 4 inches)  
 GB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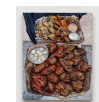
**Gina Beavers**  
*Gilgeori Toast*,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50.8 x 40.6 x 10.2 cm (20 x 16 x 4 inches)  
 GB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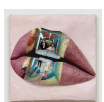
**Gina Beavers**  
*Liz Phair 'Parasite' Nails*,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76.2 x 76.2 x 10.2 cm (30 x 30 x 4 inches)  
 GB020



**Gina Beavers**  
*Liz Phair 'Parasite' Butt Cake*,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76.2 x 76.2 x 10.2 cm (30 x 30 x 4 inches)  
 GB021



**Gina Beavers**  
*Korean Fried Chicken*,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50.8 x 40.6 x 10.2 cm (20 x 16 x 4 inches)  
 GB016



**Gina Beavers**  
*Liz Phair 'Parasite' Lips*,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76.2 x 76.2 x 10.2 cm (30 x 30 x 4 inches)  
 GB019



**Gina Beavers**  
*Liz Phair 'Parasite' Eye*, 2020  
 Acrylic on linen on panel  
 76.2 x 76.2 x 10.2 cm (30 x 30 x 4 inches)  
 GB018



## 지나 비버스 <열정가들>

2021년 1월 16일 - 3월 20일

베리어스 스몰 파이어스는 미국 작가 지나 비버스의 아시아 개인전 데뷔를 서울지점에서 소개한다. '이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열정가들>은 VSF와의 첫 전시이다. 소비자 중심주의, 팬덤 문화, 세계 미디어 유통, 이미지 소비와 조작, 자아 창작과 왜곡의 주제를 포함한 현대 인터넷 문화와 사회 현상을 살펴본 신작 8점을 선보인다.

비버스 작업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찾은 이미지를 보관하며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 비버스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문화적으로도 중복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 연예인 사진, 해시태그 #foodporn (음식 포르노)에서 찾은 이미지를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열정가들>은 미국과 한국 관객 사이에 공통점을 찾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길거리 토스트>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미국식 한국 음식 사진을 묘사했다. 작가는 촉각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 아크릴 물감을 겹겹이 바르며 조각한다.

#foodporn 이미지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탐욕스럽게 보인다. 이러한 설정적 사진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고 <열정가들>은 이 사진 장르의 근원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비버스의 조각적 그림은 인스타그램의 평면적인 이미지를 약화하는 동시에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아크릴로 신중히 만들어진 비버스의 버거는 인스타그램 사진보다 실제 음식에 더 가깝다. 작가는 주어진 물건이나 풍경을 기록하는 이미지 능력과 관련된 오래된 질문을 다룬다. 이 질문은 아직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된다.

"음식 포르노"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음식과 신체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리즈 페어 '기생충' 엉덩이 케이크>에서 문장 그대로 구현된다. 온라인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과 입술을 작품으로 옮겼다. 엉덩이, 손, 눈과 입술에는 모두 비버스가 트위터에서 발견한 미국 가수 리즈 페어가 그린 <기생충>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다. 작가는 '리즈 페어 팬아트의 팬아트'라며, 아카데미 역사 첫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 자체의 독특한 요소는 적어지고 온·오프라인에서 미디어의 세계화된 유통, 소비, 왜곡, 연예인 팬덤에 대한 명상이 된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은 부잣집 사모님인 연교가 예비 과외 선생님인 기우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며 세심하게 제작된 겹치레의 "좋은 삶"의 전형을 투영해 관객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였다. 비버스에 따르면, 이 장면은 "온라인에 사는 자본주의 삶의 경험에 거의 완벽한 현실 은유"이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몸매, 먹어야 하는 음식, 원하는 삶에 대한 행복의 모습을 신중하게 선별된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 잘 손질된 손톱, 유혹적으로 그려진 버거, 매혹적인 눈화장을 묘사한 이미지를 통해 <열정가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을 둔다.

**지나 비버스** (1974년 그리스 아테네 태생,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인류학 학사, 시카고 예술대학(SAIC)에서 회화와 드로잉 석사, 뉴욕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교육학 석사를 전공했다. 그녀는 뉴욕 MoMA PS1, 뉴욕 마리안 보에스키, 베를린 GNYP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마이클 베네벤토, 런던 칼 코스타, 뉴욕 클리프톤 베네벤토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최근 참여한 단체전으로는 린츠 역사박물관, 하를렘 프랑스 할스 박물관, 밀라노 지오 마르코니, 뉴욕 폭시 프로덕션스, 샌프란시스코 캐피탈 갤러리, 스톡홀름 로얄 갤러리, 뉴욕 프랫 맨해튼 갤러리, 롱 아일랜드 내소 카운티 미술관, 뉴욕 개빈 브라운 엔터프라이즈, 뉴욕 체임 앤 리드, 뉴욕 MoMA PS1 등이 있다.

**Various Small Fires (VSF)**는 2012년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에 의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되었다. 갤러리 이름은 LA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에드 루샤 (Ed Ruscha)의 대표적인 사진집 <다양한 작은 불꽃들과 우유 (Various Small Fires and Milk)> (1964)에서 가져왔다. 라이트의 불꽃, 타오르는 신문, 불타는 성냥, 담뱃불, 성화 등 16장의 불을 주제로 한 사진집처럼 세상을 밝히는 다양한 불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9년간 VSF는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신인 작가와 중견, 원로 작가들을 소개하며 LA 미술계의 촉매자 역할을 해왔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갤러리 건물은 140여 평의 부지에 현지 건축가 존스톤 마크리 (Johnston Marklee)가 디자인했다. LA의 풍부한 자연광을 살려 화이트 큐브 갤러리를 구현했으며, 야외공간은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설치 작품 전시도 가능하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에 대한 VSF의 관심은 구체적 실천을 통한 비전으로 드러난다.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작가 절반이 여성으로, 여성 작가들이 활동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갤러리 공간은 100%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적인 갤러리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VSF 서울은 새로운 문화 공간의 입지로 각광받는 한남동 독서당로에 자리 잡았으며 2019년 4월 1일에 개관했다. 서울 지점 개관전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두 작가, 빌리 알 벵스턴 (Billy Al Bengston)과 에드 루샤 (Ed Ruscha) 2인전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조슈아 네이션슨 (Joshua Nathanson), 매스 배스 (Math Bass), 리즈 매직 레이저 (Liz Magic Laser), 조쉬 클라인 (Josh Kline), 소저너 트루스 파슨스 (Sojourner Truth Parsons), 그리고 지나 비버스 (Gina Beavers)의 개인전을 통해 작가들을 소개한다. VSF는 세계적인 갤러리들과 돈독한 관계이다. COVID-19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뉴욕 살롱 94 (Salon 94)와 첫 번째 협업 전시에서 엘리자베스 닐 (Elizabeth Neel)을 소개했고, 브뤼셀과 뉴욕의 클리어링 갤러리 (Clearing Gallery), 그리고 베를린 코니히 갤러리 (König Galerie)와 함께 협업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VSF를 발판삼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가 더욱 친밀해지고 국내외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수학했다. 그는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후 LA에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지난 8년간 LA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미학으로 갤러리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2019년 4월 서울에 첫 지점을 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문의는 seoul@vsf.la / 070 8884 01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